

보도시점 : 2023. 4. 9.(일) 11:00 이후(4.10.(월) 조간) / 배포 : 2023. 4. 7.(금)

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 수출 물꼬 튼다

- 4월 10일부터 K-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사업 공모... 40억원 지원
- 정부 간 협력사업(계획수립형) ·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(해외실증형)
2개 분야에서 총 8개 이상 선정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정부 간 스마트시티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,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올해 「K-City Network」 사업의 공모를 4월 10일부터 시작한다.

○ 2020년부터 시작된 「K-City Network」는 해외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 시티 및 솔루션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고, 한국 기업의 스마트 솔루션 해외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, 그간 21개국에서 33개 협력 사업을 진행해왔다.

* ('20년) 11개국 12개 도시, ('21년) 11개국 11개 도시, ('22년) 10개국 10개 도시 지원

□ 올해 사업공모는 ① 계획수립형, ② 해외실증형 사업으로 구분하여 공모하고, 각각 4개 도시 이상 선정할 예정이다.

○ “계획수립형” 사업은 해외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개발과 관련한 ①마스터플랜 수립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②솔루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당 3~5억원이 지원된다.

○ “해외실증형” 사업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제품 등을 해외도시에서 실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당 3~5억원을 지원한다.

□ ‘23년도 「K-City Network」 사업은 4월 10일 공고되며, 계획수립형 사업은 5월 10일까지, 해외실증형 사업은 5월 30일까지 접수받는다.

- “계획수립형” 사업은 해외정부 등이 제안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중요도, 사업성, 실현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,
- “해외실증형” 사업은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업 추진 여건 및 우리 기업의 진출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할 예정이며,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.
-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www.molit.go.kr)과 스마트 시티 종합포털(www.smartcity.go.kr)에서 4월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“「K-City Network」는 우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”라면서,

- “한국형 스마트시티가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실현되고, 우수한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진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	윤영중 (044-201-3674)
		담당자	사무관	이윤하 (044-201-4844)



참고

K-City Network 개요

- (개념) 정부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발굴 및 개발, 기술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('20~)
- (계획수립형) 해외 정부가 사업을 신청하면, 한국에서 ①스마트 도시 개발 또는 ②스마트 솔루션(교통·물·에너지 등) 마스터플랜, F/S 등 지원
- (해외실증형) 우리기업과 해외협력기관이 사업을 신청하면, 국내에서 개발된 스마트시티 기술을 해외도시에 직접 적용·실증 지원

구분	① 계획수립형	② 해외실증형
지원규모(곳 당)	4~5곳 선정(3~5억)	4~5곳 선정(3~5억)
지원대상	①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 ②스마트 솔루션 구축·운영	국내에서 상용화된 솔루션 해외 실증
지원유형	기본구상, MP, F/S 등	시범 실증사업

- (지원 국가) '20년~'22년까지 21개국, 33개 사업 추진

